

 <b>한국문화원</b>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LA한국문화원 <a href="http://www.kccla.org">www.kccla.org</a>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시	2018.5.18 (금)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 제24회 현대미술공모 선정 작가전:

### 주어진 조건(Circumstances)

- ▶ 전 시 명 : 주어진 조건 (Circumstances)
- ▶ 일 시 : 2018.5.25(금)-6.14(목)
- ▶ 시상식 및 개막식 : 2018.5.25(금) 7: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 한국문화원
- ▶ 문 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 ▶ 선정작가 : 앤드리 카터(Andrée B. Carter / LA, CA)  
김동규(Dong Kyu Kim / Fort Lee, NJ)  
이한정(Han Jeong Lee (Fullerton, CA)  
윤혜원(Hyewon Yoon / Chandler, AZ),  
이성재(Sung Jae Lee / LA, CA)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제24회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전에 당선된 5명의 작가 전 “주어진 조건” 전시회를 2018년5월25일(금)부터 6.14(목)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93년도에 시작된 LA한국문화원의 현대미술공모전은 예술을 매체로 작가와 관람객, 그리고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준높은 전시회로 LA한국문화원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동안 공모전에 참여한 선정위원들과 작가들의 열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현대미술공모전은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작가들은 그들의 삶과 이데올로기, 예술적 성향 등이 스며든 작품들을 공모전을 통해 소개하고, 관람객들은 그들의 예술에 대한 시각을 작품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0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응모하였다.

LA한국문화원의 김낙중원장은 “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다른 공동체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닌 전국 다른 커뮤니티의 재능있는 작가들이 함께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 문화원이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올해의 심사위원은 수잔 그레이(Susan Gray / LA카운티 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LA 메트로 창조서비스 매니저)와 패트리샤 고메즈(Patricia Gomez / 어바인 아트센터 큐레이터)가 참여하여 5명의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설치, 드로잉, 유화, 비디오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어진 조건> 전시는 2018년 5월25일(금) 저녁 7시 개막식에는 선정위원 및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1등(1명) \$3,000, 2등(1명) \$2,000, 그리고 우수작가상 3명에게 각 \$1,000의 격려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선정작가;

1. 앤드리 카터 (Andrée B. Carter /LA, CA)



Lavanda e Miele / 48(H)x48(W) inches

앤드리 카터의 그림은 색상, 마크 메이킹을 중요시하며, 그리고 즉흥적인 연주와 같다. 그녀에게 색상은 초콜렛이나 마약과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니고 있다. 불규칙한 격자를 사용하여 표면이 완전히 덮일 때까지 수백, 때로는 수천 개의 작은 자국을 캔버스에 만들면서 그리드를 생성한다. 이 그리드는 그녀의 이탈리아 조부모가 계셨던 루이지애나 사탕 수수 농장의 부엌과 식당에 있는 흑백 타일 바닥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녀의 아이덴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콜라주 위에 게소, 아크릴, 그리고 오일로 레이어를 만들고, 그 위에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고 물감과 식물들을 실로 엮어내며 합쳐져 서로 구분할 수 없게되는데 이 과정을 그녀는 여러명의 음악가가 연주하는 즉석 연주와 비교한다.

2. Dong Kyu Kim(Fort Lee, NJ)



The United Stitches / 63(H)x 55(W) inches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김동규의 작품들은 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미국에서 패션디자이너로서 살면서 파생된 영수증으로 제작된 작품들로, 작가의 체류 신분에서 따른 일련의 시련 속에서 시작된 질문(왜 그토록 미국에 있고 싶어하는지?)에서 기인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자신 안에 축적된 감정의 근원들을 찾고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손으로 하나씩 껴매는 형식을 통해 표현되었다. 한국 전통공예, '조각보'를 선택한 것은 끊없는 손바느질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구현하려는 작가의 방식이다. 지난 10년동안 버려진 영수증을 모아 손으로 함께 껴매는 조각보 형식의 작품을 탄생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술과 일상 생활을 하나로 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와의 연결, 외국인으로서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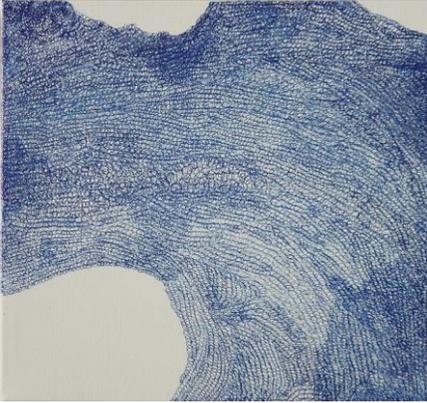
### 3. Han Jeong Lee (Fullerton, CA)



Fields / 39.37(H)x62.2(W) inches

이한정 작가의 작업은 우리가 종종 자동차 창문에서 볼 수 있는 논과 밭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드럽게 구불구불한 언덕과 광대한 필드, 그리고 그 끝의 숲과 나즈막한 집들이 발견된다. 이한정 작가는 아무소리 없이 조용히 변화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다. 긴 천을 늘어뜨린 것과 같은 논과 밭은 삶으로 가득한 땅으로 표현되어진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넘쳐나는 시골풍경은 작가의 희미한 기억에서 상상력으로 재구성되었지만, 마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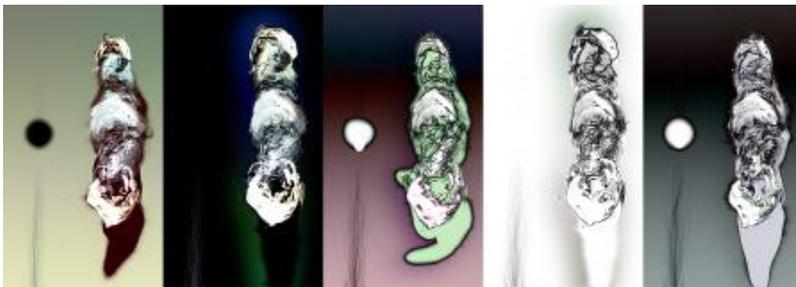
#### 4. Hyewon Yoon(Chandler, AZ),



Ecdysis Continuum 08 /10(H)x10(w) inches

윤혜원 작가는 일상 생활에서 보는 유기적인 구조와 풍경을 다루고 있다. 나무, 꽃, 숲 등의 이미지를 작가의 직관적인 시각이나 감정으로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결정화하여 상상의 풍경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고자하였다. 캔버스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은 작가의 생각을 다른 시각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윤작가는 훌륭한 드로잉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5. Sung Jae Lee (LA, CA)



This Uncertain Conversation / Multi Channel Video

이성재 작가는 그가 작업해오던 숲과 산의 모습을 시간과 거리의 차이를 통해 관찰하며, 섬세하고 활동적인 부분의 요소들과 정적이고 반영구적인 전체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제작된 <This Uncertain Conversation: 이 불확정적인 대화>는 구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을 통해 제작된 추상회화로써 미세하게 변화하는 추상적인 형태속에 인지되기 어려운 크기로 묘사된 유기체의 활동적인 모습을 포함한다. 총 60분의 재생시간을 통하여, 본 작품은 영원히 반복되는 무상함의 과정과 부분과 전체 간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한다. 끝.